



정교회주보

제2431호

2023.7.30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성모 성당(사진)은 7세기에 키프로스 남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초이로코이티아 마을 서쪽 들판에 지어졌다. 돔이 있는 십자가형 비잔틴 양식의 성당이다. 주변에서 다수의 무덤 자리가 출토된 것으로 보아 공동묘지 터로 추정된다. 또한 서쪽 마당에서는 고대 올리브 오일 추출에 사용되었던 방앗간이 발견되었다.



마태오 제8주일
성 실라와 성 실루아노스 사도
(제7조 • 조과 복음 8)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7조 부활 찬양송 82
 - 사도 찬양송 84
 - 성당 찬양송
 - 구세주 변모 시기송 178
 - 사도경 : 고린토 전 1,10~17 (봉)183
 - 복음경 : 마태오 14,14~22 ... 112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참된 소망

소망이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즐거운 감정입니다. 따라서 소망은 믿음의 결과요 열매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자손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스러운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지만, 그 약속은 이뤄지지 않은 채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그의 소망은 현실이 되어 나타났고 그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참된 소망이란, 비록 가끔은 하느님의 축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느껴지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거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서의 메아리' 중에서

고추밭 여인들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



양구 성당 올라가는 길 어귀 작은 밭에서 고추 농사를 짓던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날에 저녁 기도식 후, 그늘진 성당 계단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고추밭 자매님이 그날 낮에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피약별 속에서 땀을 비 오듯 흘리며 허리 한 번 못 펴고 김매기를 하는데 지나가던 승용차가 멈춰서고 잘 차려입은 중년 여인 두 명이 내려서 말을 걸더랍니다. ‘저 위에 보이는 교회는 무슨 교회냐? 우리도 교회 다니다.’ 그러면서 ‘고추 농사가 참 잘됐다.’며 관심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자매님은 보통 시골 인심이 그렇듯 몇 개 따가시라고 말했답니다. 여인들은 그래도 되냐며 고추밭으로 들어와 비닐봉지에 마구 따서 담더라는 겁니다. 우리 자매님은 어쩔 줄 몰라 말도 못하고 안절부절못하는데 ‘잘 먹을게요.’ 한마디하곤 그대로 차 타고 떠났답니다. 얼마나 밭을 휘젓고 다녔는지 군데군데 고추 가지가 꺾여지고, 부실한 고추는 그냥 버린 다음 다시 따고 말이죠. 자매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어찌나 안타깝고 속상한지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농사든 쉽지 않습니다만 특히 고추 농사는 손이 많이 가는 작물입니다. 김매고 뒤돌

아서면 다시 잡초가 파릇하게 올라온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냥 맛보기로 몇 개만 따가면 서로 좋은데, 욕심이 도를 넘었습니다. ‘그까짓 거 몇 톨이나 된다고...’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농사짓는 분들에게 농작물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부모 봉양하고 자식 키우는, 목숨보다 더 소중한 먹거리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필요하면 돈 내고 사서 먹으면 되는데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이중성에 안타까움이 밀려옵니다. 형식적인 믿음, 습관적인 신앙이 이래서 무섭습니다. 입만 열면 사랑을 말하고, 더불어 사는 게 어떻고, 복음이 어떠니, 구원받았느니 하는 사람들의 민낯이 그저 민망할 따름입니다. 따지고 보면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생각과 행동에서 신앙인답지 않은 이기적인 모습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이런 이중성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진실한 믿음입니다. 형식적이고 흉내만 내는, 무늬만 그럴듯한 믿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느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가르침 3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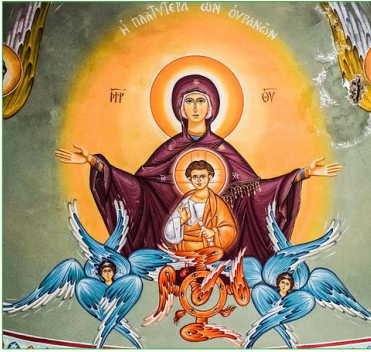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제 믿음이 부족하다면 도와 주십시오.”(마르코 9,24)

비록 이 말이 처음에는 모순된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 이 발언은 성서에서 신앙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진술들 가운데 하나인 듯합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약령에게 사로잡힌 아이를 살려주신 기적, 마르코 9,14-29 참조)이 일어나게 만든 감정과 정신적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을 방해하는 의심을 인정한 채 참으로 진실되고 겸손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 토마 사도에게 그랬듯이 우리 삶에서도 ‘의심’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살살 파고들어 올 때가 있습니다(요한 20,24-29). 우리는 믿으려고 부단히도 애쓰지만 의심이 우리의 확신 속으로 몰래 기어들어와 우리의 믿음을 뒤덮어버리고는 꿈쩍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의심은 피할 수가 없는데, 제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께 충실하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인간 본성상 연약하고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만약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 결코 의심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흔히 생각하곤 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사실 그런 ‘의심 없는 신앙’을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누군가 그런 입장을 지니고 있다가 삶에서 자신의 신앙을 자극하거나 시험하는 일을 맞닥뜨리게 될 때, 종이로 만든 불완전한 집처럼 한순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의심하는 것과 그런 의심을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더 강하게, 그리고 더 탄력이 있어서 회복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본질적으로 ‘의심’은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비극이 일어나고, 가까운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하고,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고,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할 때, 악마는 교묘하게도 여러분이 보일 반응의 맨 앞에 의심을 가져다 둡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의심을 인정하고, 그것과 맞닥뜨리며, 마침내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힘이며 여정입니다.



구세주 변모 수도원 축일 안내

다음 주일(6일) 축일을 맞는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에서는 예년처럼 축일 성찬예배가 거행됩니다. 참례를 원하시는 분은 소속 성당을 통해 미리 알려주시면 준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절 버스는 없으니 개별적으로 오시면 됩니다.

소식

■ 성모 안식 축일 준비

8월 15일 성모 안식 축일 맞이기를 위해,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엄격한 금식을 합니다. 또한 매일 저녁에는 '성모 소기원 의식'을 드립니다. 금식과 기도를 통해 성모님의 큰 축일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습니다. 8월 6일 구세주 변모 축일에는 생선류가 허용됩니다.

■ 전주 성모 안식 성당 성화 작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무더운 날씨 등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화 작가 및 봉사자들의 건강과 원활한 작업을 위해 하느님께서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모두 기도드립니다.

■ 대교구 여름 수련회 취소

예상치 못하게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안타깝게도 올해 대교구 여름 수련회는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가을에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수련회를 계획할 예정입니다.

성인의 가르침

자신의 정진에 힘쓰시오

은수자 이사야 사부가 유익한 조언을 수도자들을 위해서 해주었다.

“형제 수도자들의 기도처를 기웃거리지 말고,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을 마음에 품고 자신의 기도처에 머물며 기도와 학습과 수작업에 집중하십시오.

수다를 멀리하고 다른 형제들이 무엇을 하는지 살피지 마시오. 그리고 자신보다 더 많은 일을 하든지 또는 적게 하든지도 개의치 마시오.”

